

현시기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림 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20세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실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현시기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종전의 굳어진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사고와 실천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모든 사고와 실천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유일중심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위력과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군사적위력에 의거하여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워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내세우고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목표는 지난 세기의

사회주의건설목표와는 대비할수 없이 비상이 높으며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주체적방법론은 이미 낡아버린 지난날의 사고방식과 일본새를 배격하고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혁신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원래 주체적방법론자체가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방법론이다.

우리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으면서도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에서 종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것을 독창적으로, 혁신적으로 들고나오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는것이 인민대중의 본성적지향과 요구에도 맞고 창조와 혁신의 고유한 의미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체적방법론이다.

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답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자면 우선 모든 부문에서 일판을 통이 크게 설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큼직큼직하면서도 폭폭 자리가 나게 해제끼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이며 이런 일본새가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여 사업을 립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쪼물쪼물하게 설계하고 만들어내려 할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공지능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친 위성과학자들처럼 세인을 놀래우게 창조하여야 한다.

립체전, 전격전으로 일판을 벌려나감으

로써 강성국가건설의 포성이 나라의 도처에서 쿵쿵 울려나오게 할 때 주체적방법론이 구현된다고 말할수 있으며 그래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하고 창조적으로 벌려나간다고 할수 있다.

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자면 또한 모든 부문에서 단숨에의 속도로 진군해나가야 한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의 발전속도는 지난 20세기의 발전속도와 대비도 하지 못할만큼 빨라지고있다. 오늘의 새것이 래일이면 벌써 낡은것으로 되어버리고 앞섰다고 해서 자만하여 조금만 해이되어도 순식간에 아득히 멀리로 뒤떨어지게 되는것이 새 세기 세계발전속도이며 뒤떨어지면 남에게 예속되어야 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0년이 걸려야 할 마식령스키장건설을 1년반사이에 세계적수준에서 완공하고 새세기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을 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도 바로 이러한 세계의 발전추이와 속도를 반영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맡겨진 혁명과업을 선군룡마를 탄 기세로 질풍치며 전격적으로 해제껴야 한다. 오늘 못하면 래일 한다는 식이 아니라 래일의 과제를 오늘로, 오늘의 과제를 몇시간으로, 몇시간의 과제를 몇분안으로 끝낸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하루를 백날천날맛잡이로 긴장하게 내달려야 한다.

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자면 또한 모든 부문에서 하나의 창조물을 만들어도 새롭고 독창적인 맛이 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독창성은 주체적방법론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반복과 도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복과 도식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혁신과 창조가 있을수 없으며 반복과 도식이 허용된다는것자체가 제기되는 혁명과업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가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현실적조건에나 다 들어맞는 고정불변한 형식과 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다른 나라의것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현실에 맞을수 없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아무리 우리의것이라 하더라도 20세기의 방법론이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맞을수는 없다.

어떤 사업에서나 남의것을 본따려 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것이라도 20세기에 써먹던 형식과 방법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시일이 지나면 낡은것으로, 뒤떨어진것으로 되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구자적모범으로 내세워주신 모란봉악단처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며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사업을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들게 벌려나가는것이 바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안목과 각도에서 진행해나가는것으로 된다.

사업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자면 또한 모든 부문에서 자기 사업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최상의 높이에서 진행해나가야 한다.

오늘 세계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섰으며 지식경제시대는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는 시대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강국을 건설하고있으며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지식의 힘에 의하여 일떠서는 강성국가라

고 말할수 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모든것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높이에서 혁신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첨단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를 창조하여도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으로 창조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과학기술적으로 뒤떨어지면 세계적수준의 창조물을 더 많이, 더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낼수 없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갈수 없다는 높은 자각과 열의를 안고 최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최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길이 바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모든것을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해나가는 길이다.

현시기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모든 사고와 실천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적으로 발전시킬뿐아니라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한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미전에 다 거친 길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언제가도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떨칠수 없다. 이미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지나온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는것은 그만큼 뒤떨어져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의 뒤통무니를 따라가기만 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우리 조선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나타낼수 없고 모든 분야에서 당당하게 발전한 나라, 세계가 우리러보는 조선을 일떠세울수 없다.

주체적방법론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보다 앞서겠다는 야심만만한 담력과 배짱, 민족적자존심도 없이 남의 뒤통무니나 따라다니는것을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주체적방법론은 남들이 지난 기간에 걸어온 길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세계적인 안목, 배짱을 지니고 남들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것을 요구하는 혁명적방법론이다. 그것은 앞섰다고 자만하거나 뒤떨어졌다고 하여 패배주의에 빠지는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앞섰으면 그 지위를 계속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떨쳐나서고 뒤떨어졌으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따라앞서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주체적방법론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데 대한 당정책을 잘 알고 남보다 앞서나가겠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분발하면 얼마든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짱을 지니고 진취적으로 투쟁해나감으로써 모든것을 세계적인 높이에서 대담하게 혁신하고 창조해나가야 한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높이에서 대담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자면 우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분야의 세계적발전높이와 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

자력갱생한다고 하면서 세계의 발전모습과 발전추이를 다 외면하고 우물안의 개구리격이 되여 그와 유리되여 사고하고 활동하여서는 언제가도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없다.

주체적방법론은 세계적높이에서 사업을 설계하며 실천할것을 요구한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는것은 세계를 아는것을 필수적전제로 한다.

세계를 모르고 세계와 유리되어 사업하면 남들이 이미전에 다 해놓았거나 다 리용해보고 불필요한것으로 켜버린것을 이제야 해내면서도 마치도 큰것을 해놓은것처럼 생각하게 되며 그렇게 사업하는것이 뒤떨어진것이라는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세계를 보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세계와 겨루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는것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창조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주체적방법론이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높이에서 대담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자면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것,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룩한 선진적인것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룩한 선진적인것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은 주체적방법론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주체적방법론은 세계가 달성한 우수한 성과나 다른 나라와 민

족들이 이룩한 선진적인것을 무턱대고 배척하는 배타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주체적방법론은 세계의 발전된것,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룩한 선진적인것을 배척하라는것이 아니다.

주체적방법론이 배척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교조주의에 빠져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룩한것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통채로 받아들이는것이다.

세계의 발전된것,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이룩한 선진적이고 우수한것들을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키면 세계와 겨룰수 있고 나아가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지만 남의것을 덮어놓고 배척해서는 세계에 앞서나갈수도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도 없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우수한것들을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수준을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발전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방법론의 요구대로 경직을 풀고 모든 사고와 실천을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선군조선을 세계에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